

SICHEM 2003 “기대이하 실망!”

경기악화로 2002년 규모의 절반 수준 ... 중국기업 참가는 증가

8월27일부터 30일까지 삼성동 코엑스(COEX) 인도양홀에서 개최된 제10회 서울국제화학종합전이 석유화학 기업들의 참여가 낮고 관람객들의 발길이 뜸해 행사관계자의 속을 태웠다.

SICHEM 주최 관계자는 불경기로 인해 2002년 제9회 서울국제화학종합전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일반 관람객의 호응도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준비가 덜 된 관계로 행사장 곳곳에서 마무리 설치작업이 진행중이었고 일부 진행 도우미 요원들의 불친절은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SICHEM 2003 전시회 전경



그러나 각 부스에서는 외국 바이어들과의 즉석 계약이 성사되기도 했고 중국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확연히 증가해 중국의 기술발전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의 또다른 특징은 기업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의 발길이 환경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부스에 많이 몰려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배연호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01>